

6대 가전기기 에너지 효율향상 자발협약 체결

본회(회장 윤종용, www.gokea.org) 주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와 LG전자, 삼성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8개 전자업체는 2005년 6월 30일(목) 오전 10시 정부중앙청사 국무총리접견실에서 가정 전력소비의 62%를 차지하는 냉장고, TV, 전기밥솥, 컴퓨터, 세탁기, 에어컨 등 6대 가전기기에 대하여 2008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2.6% 향상시키기로 하는 『6대 가전기기 에너지 효율향상 협약』을 체결하였다.

※ 참여업체 : 삼성전자(주), LG전자(주), (주)대우일렉트로닉스, 위니아만도(주), 캐리어(주), 쿠쿠전자(주), (주)부방테크론, 웅진코웨이(주)

협약식은 이해찬 국무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정부 대표로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과 전자업계 대표로 LG전자 김쌍수 부회장의 에너지 효율 향상 협약서 교환으로 이루어졌다.

『6대 가전기기 에너지 효율향상 협약』은 국제 기후변화협약 및 에너지 자원의 고갈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 활동으로부터의 지구 생태계 보존과 에너지 사용 저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하는 전자업계의 자발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 협약으로 연간 에너지절 732GWh 절감(에너지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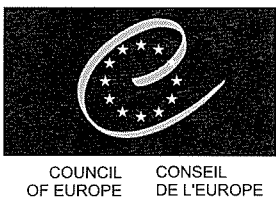


금액 805억원)과 이산화탄소(CO₂) 35만톤 감축을 기대한다.

『6대 가전기기 에너지 효율향상 협약』의 내용은,

1. 2008년까지 달성할 목표 효율 설정, 에너지 효율기준 달성 제품의 생산 및 보급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
2. 정부는 기업의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기업은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고 대기전력 1W 이하가 되는 제품의 시장 공급을 위해 노력
3. 가전기기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및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홍보를 통해 에너지절약형 제품 구매를 촉진 등이다.

본회, EU 환경규제 대응 본격 나서 유해물질 시험분석 교육 실시



COUNCIL OF EUROPE CONSEIL DE L'EUROPE

산업자원부에서는 본회(회장 윤종용, www.gokea.org) 주관으로 7월 12일(화)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유해물질 시험분석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산업자원부 지원으로 추진 중인 “국제환경규제대응 지역별 중소기업 종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예정인 EU의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RoHS)에 대응하여 중소기업들의 지원을 위한 것이다.

수원, 안산, 부천, 대전, 구미, 광주 등 6개 지역별 클러스터 및 시험분석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

은 KOLAS(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인증, KS분석규격(안) 및 전처리, 기기분석 등 국가표준을 보급하기 위한 내용들이 주로 다루어 졌다.

이번 교육에는 또한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도 참여하여 실제 대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험분석 사례와 요구사항들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져 시험분석기관에서 발급되는 성적서가 실제로 통용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본회는 향후 6대 유해물질에 대해 금속, 고분자, 복합재료, 세라믹 등 재질별로 시험 분석 교육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시험분석기관간의 오차범위를 줄이고 신뢰성 있는 시험성적서 발급을 위해 연말까지 RRT(비교시험), 연구원 숙련도 테스트 등 도 실시할 예정이다.